

고교 스타들 있기에... 광주·전남 미래 밝다

체조 한소리·다이빙 류민재·육상 이원·볼링 이영승...

인천전국체전서 광주·전남 금메달 76개 중 37개 수확

최근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전남 고교선수들이 선전하며 지역 스포츠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시·도 고교선수들은 광주 35개 금메달 가운데 12개를, 전남 41개 금메달 중 25개를 수확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 광주=조정 더블스컬 종목에 출전한 유혜령(광주체고 3년)·박예리(〃 2년)조가 17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 골프 조대권(동일전자정보고 3년)·주혁(〃 1년)은 공태현(호남대 1년)과 짹을 이뤄 출전한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체조(금 4, 은 2, 동 2)와 레슬링(금 2, 은 1, 동 2), 육상(금



육상 이원

볼링 이영승

1, 은 1, 동 3)에서 빛을 발했다. 올해 획득할 수는 지난해 34개(금 7, 은 13, 동 14)보다 상향된 총 42개(금 10, 은 16, 동 16)이다.

체조 종목에서도 한소리(3년)가 2관왕(평균대, 개인종합)에 올랐고, 정애지·김유환(이상 1년)과 주경서(1년)가 고등부 어여로비

2인조와 남고부 안미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 류민재(3년)는 열악한 훈련환경 속에서도 스프링보드 3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홍정석(3년)과 호흡을 맞춘 싱크로 디아빙 3m와 10m에서도 은메달 2개를 추가하며 한국 수영의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 전남=다관왕도 탄생했다. 볼링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 3년)은 여고부 개인전과 3인조전, 5인조전, 마스터즈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김동요(고흥산업과학고 1년)도 여고부 3관왕(2인조·3인조·5인조)에 올랐다.

하지만 광주·전남 고교 스포츠 유망주들의 기량향상과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에 마땅한 실업팀이 없는 종목의 경우 유망주들이 출업 후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시·도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했던 실정이다.

▲ 역도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는 남고부 69kg급 용상에서 대회신기록(171kg) 작성과 2관왕을 차지했고, 육상 이원(전남체고 3년) 역시 남고부 200m와 400m를 석권했다.

사이클 임사랑(전남미용고 3년)은 여고부 경륜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했다.

특히 이번 체전에서 전남체고 육상부(감독 문봉기)는 금 10, 은 7, 동 7개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03년 개교 이래 육상부가 전국체전에서 획득한 메달은 총 108개(금 43, 은 30, 동 35개)에 달한다.

하지만 광주·전남 고교 스포츠 유망주들의 기량향상과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에 마땅한 실업팀이 없는 종목의 경우 유망주들이 출업 후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시·도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했던 실정이다.

◇ 전남=다관왕도 탄생했다. 볼링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 3년)은 여고부 개인전과 3

인조전, 5인조전, 마스터즈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김동요(고흥산업과학고 1년)도 여고부 3관왕(2인조·3인조·5인조)에 올랐다.

하지만 광주·전남 고교 스포츠 유망주들의

기량향상과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

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에 마땅한 실업팀이 없는 종목의 경

우 유망주들이 출업 후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시·도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했던 실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한국 수영의 기대주인 류민재(광주체고 2년)가 최근 열린 인천 전국체전 스프링보드 3m 종목에서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류민재는 스프링보드 3m와 싱크로 디아빙 3m, 싱크로 다이빙 10m에서 3개의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프로축구 광주 FC, 안양 상대 막판 스퍼트

K리그 철린지 31R 3일 품경기

3연패 탈출·3위 수성 총력전

프로축구 광주 FC가 FC 안양과 K리그 철린지 31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광주는 최근 3연패에 빠지면서 마지막 자손임인 3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맞대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 안양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광주의 승리가 어느 때보다 간절한 이유다. 최근 부진의 원인은 골 결정력이다. 전반적으로 경기를 압도하고도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비 리안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격의 힘’ 뿐이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집중전에 서 달리고 있고 김호남·임선영 등 축면지원들도 상대에

게 패턴을 읽으면서 과도기를 겪고 있다.

2선 지원들의 안정적인 모습은 그나마 위안이다. 부주장 김은선을 축으로 이어진 오도현, 오도현, 여름 등이 조직적인 패스워크와 강한 압박을 통해 중원을 장악하고 있다.

포백라인의 경우 양 측면 수비지원의 부상과 경고 누적 등으로 100%의 전력을 구성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김준엽, 여름, 마철준 등의 현신적인 팀 플레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안양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다. 3경기에서 1무2패를 기록하고 있고 골득실에서 밀려 수원에게 4위 자리를 뺐겼다.

박병원, 최진수, 박정식 등 2선과 축면지원들이 고비마다 알토란같은 득점포로 팀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최전방의 밤길이 무디다. 베테랑 김효준과 중앙 수비 콤비를 이루는 신

인 가슬현도 제공권과 파워에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실수로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스피드에 자신 있는 광주는 안양의 허술한 수비진과 골키퍼 사이의 뒷공간을 집중공략할 생각이다.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는 수비수 오도현이다. 오도현은 광주의 텃밭에서 자란 ‘유소년 시스템’ 1호 선수다. 광주 산하 U-18팀인 금호고를 졸업한 오도현은 188cm의 신장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몸싸움에서 밭군을 실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 티를 채 벗지 못한 어린 선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의 여유있는 볼처리 능력도 돋보인다.

프로 첫해 12경기를 소화하며 프로 무대 연착륙에 성공한 ‘막내’가 팀의 3위 수성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영표, 15일 스위스 평가전서 은퇴식

최근 현역에서 은퇴한 ‘조롱이’ 이영표(36)가 1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스위스와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에서 은퇴식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예정된 스위스 평가전에서 이영표의 현역 시절 등번호인 12번을 기념해 ‘아류 NO. 12’라는 주제로 은퇴식을 연다.

1999년 6월 12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리아컵 멕시코전에서 A매치에 데뷔한 이영표는 2000년, 2004년, 2011년 아시안컵은 물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까지 대표팀 부동의 원족 풀백으로 활약했다.

이영표는 2011년 1월 28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카타르 아시안컵 3-4위전을 마지막으로 퇴역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예정된 스위스 평가전에서 이영표의 현역 시절 등번호인 12번을 기념해 ‘아류 NO. 12’라는 주제로 은퇴식을 연다.

이영표의 A매치 출전 횟수는 흥명

보 축구 대표팀 감독(135경기)과 이

운재(132경기)에 이어 국내 선수로는 세 번째로 많다.

또 프로 선수로서는 2000년 안양

LG에 입단하며 K리그에 데뷔했고, 2002년 한·

일 월드컵 이후 인트호프(네

덜란드)에 입단한 뒤 토트넘(잉

글랜드), 도르트문트(독일),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 배쿠버 화이트캡스(캐나다) 등에서 활약했다.

이영표는 지난 28일 캐나다 밴쿠버

의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라피스와의 미국프로축구

정규리그 최종전을 마친 뒤 현역에서 은퇴하며 유니폼을 벗었다.

/연합뉴스

11월 28일(목)

▲ 블랙아크 명성필드 11월 28일(목), 강원 태백산, 010:00 염주상부정견너번, 01:10 교원공제, 02:20 문예후문, 01:30 동광주블랙아크, 02:30 달금수수리

11월 29일(금)

▲ 빛고무지개기산악회 11월 29일(금)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염주상부정견너번, 08:20 동광주경기장, 08:3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30일(토)

▲ 광주산악회 11월 30일(토)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31일(일)

▲ 광주산악회 11월 31일(일)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12일(월)

▲ 광주산악회 11월 12일(월)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13일(화)

▲ 광주산악회 11월 13일(화)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14일(수)

▲ 광주산악회 11월 14일(수)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15일(목)

▲ 광주산악회 11월 15일(목)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16일(금)

▲ 광주산악회 11월 16일(금)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17일(토)

▲ 광주산악회 11월 17일(토)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18일(일)

▲ 광주산악회 11월 18일(일)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19일(월)

▲ 광주산악회 11월 19일(월)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20일(화)

▲ 광주산악회 11월 20일(화)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21일(수)

▲ 광주산악회 11월 21일(수)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22일(목)

▲ 광주산악회 11월 22일(목)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23일(금)

▲ 광주산악회 11월 23일(금)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24일(토)

▲ 광주산악회 11월 24일(토) 경남 고성 향로봉, 08:00 문예후문, 09:00 문예후문

11월 25일(일)